



■ 지우마 후세피 브라질 신 정부의 전망과 과제

박 원 복

지난 10월 30일 대선 2차전에서 여당인 노동자당(PT)의 후보로 나선 지우마 후세피(Dilma Rousseff)가¹⁾ 첫 브라질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룰라 현 대통령과 함께 방한하여 세계무대에서 각국 정상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가 세계에서 11번째 여성 국가원수이자 GDP기준으로 세계 8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국가원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임기말년임에도 불구하고 80%가 넘는 지지도를 누리고 있는 룰라 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우마가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 점에

1) 지우마 후세피는 1947년 12월 14일 생이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불가리아 후손인 그녀는 16세에 정치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60년대 중엽에 군부독재에 반대하여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카를루스 아라우주(Carlos Araujo)와 재혼한 이듬해인 1970년 체포되어 3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지냈다. 1980년 민주노동당(PDT)에 가입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그녀는, 2001년 노동자당(PT)으로 이적하여 룰라 대통령 정부에서 광산·에너지부 장관을 거쳐 정무장관을 역임, 그 능력을 인정받아 룰라의 지명으로 대선에 도전하여 승리하였다.

있다고 본다. 첫째, 룰라의 후광으로 당선되었지만 그 후광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정치를 과연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룰라의 엄청난 인기도가 자신의 당선에 압도적인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 다수가 그녀에게 룰라와 같은 업적을 기대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제는 룰라의 지원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된 셈이다. 둘째, 2차 경선까지 치른 이번 선거에서 지우마는 56.05%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브라질 민주사회당(PSDB) 후보였던 주제 세하(José Serra)는 43.95%의 득표율을 보였다. 두 후보의 득표를 분석해 보면 우선 지우마는 북동부 지방을 중심으로 저학력의 중하위 소득 계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던 반면에 주제 세하는 브라질의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상파울루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학력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였다. 북동부 출신인 룰라의 후광이 다시 한 번 발휘된 셈인데 문제는 노동자당이 아직 사회계층별 기준으로 전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 창당되어 여타 정당들에 비해 비교적 연륜이 적은 정당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정당이 아닌 특정계층의 정당이라는 비난과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셋째, 경제와 외교 문제로서 경제는 미화대비 헤알화의 고평가 절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G20에서

	남부	남동부	북동부	북부	중서부
지우마 후세피	46.11	51.88	70.58	57.53	49.08
주제 세하	53.89	48.12	29.42	42.57	50.92

두 후보의 지역별 득표율(단위: %)

룰라 대통령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한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6,000억 달러 채권매입을 통한 자국의 경기 부양책을



당선 소감을 밝히는 지우마 후세피(출처: <http://www.guardian.co.uk/world/gallery>)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는데, 새 정부는 기존의 브라질 외교기조인 자주권과 보편주의 범주에서 선진 대국들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룰라정부 때와 같은 지나친 중국 접근은 자칫 여타 강국과의 알력을 낳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 긴밀화 없이는 브라질이 추구하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이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우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였기에 미국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룰라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일부 수정이 요구된다. 지우마 정부는 큰 틀에서 룰라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예를 들면, 선거 유세 동안 지우마 후보는 룰라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저소득 지원정책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를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표심을 의식한 공약이지만 저소득층에게 물고기를 거저 주는 것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결과를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의 실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대통령 당선 결과에 환호하는 시민(출처: <http://www.guardian.co.uk/world/gallery/>)

끝으로 지우마 후세피 정부는 2006년 룰라의 2기 정부 때와는 달리 하원의 최대 의원 수(88명)를 확보하였고 대선에서 연합한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도 그 뒤를 이어 79석을 차지하였다. 상원에서도 PMDB(20석 확보)에는 뒤지지만 14석을 차지함으로써 연정을 구성하게 될 여타 정당들의 의원 수를 합하면 상하원 과반수의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의 미래에 대하여 우려보다 기대가 더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